◈ School Library's Today and Tomorrow

학교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1971년도의 회고와 전망——

權 瀅 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장학사〉

I. 머 리 말

우리 나라 교육계에 새로운 의미의 도서관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54년이고, 이것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57년 여름에 시작된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사서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로부터 어언 17년간, 연륜을 쌓은 보람이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

교육을 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말하고, 산간 벽지에도 도서관의 수가 불어나고 있음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경제가 좀 더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가까운 장래에, 학교마다 도서관이 없는 곳이 없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마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단, 한가지 두려운 것은 필자가 학교도서관을 전국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자료도 별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누락되는 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II. 수적(數的)으로 본 학교도서관

〈표 1〉을 살펴보건데, 전국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합계 8,458교에 도서관이 2,785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3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부산직할시가 85%로 수위, 다음이 경상남도로 48%, 3위가 43%인 서울특별시이며, 전라북도, 충청북도,

〈표 1〉 A. 1971년도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

교별	시도별 / 종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국민학교	학 교 수	206	99	663	607	372	615	553	931	971	836	108	5,961
	도서관수	60	86	168	85	15	195	28	303	326	405	21	1,692
	설치율(%)	29	87	25	14	4	32	5	32	34	48	20	28
중학교	학 교 수	156	68	197	123	87	162	133	193	245	211	33	1,608
	도서관수	58	56	35	13	35	61	12	25	98	78	9	481
	설치율(%)	37	83	18	11	40	38	9	13	40	37	27	30
고등학교	학 교 수	127	48	111	68	43	73	77	92	127	101	22	889
	도서관수	93	40	82	38	34	61	42	51	97	65	9	612
	설치율(%)	73	83	74	56	79	84	55	55	76	64	41	69
계	학 교 수	489	215	971	798	502	850	763	1,216	1,343	1,148	163	8,458
	도서관수	211	182	285	136	84	317	82	379	521	548	40	2,785
	설치율(%)	43	85	29	17	17	37	11	31	39	48	25	33

주 : 본 통계 중, 학교수는 문교부 발행 "문교 통계 연보"(1970. 11)에 의하였고, 학교도서관수는 한국도서관협회 발행 "한국 도서관 통계"(1971. 7)에 의한 것임.

강원도가 부진한 편이다.

학교 급별로 보면, 국민학교 설치율이 가장 낮고, 중학교도 낮은 편이며, 고등학교가 69%로 가장 높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최고 87%, 최저 4%로 격차가 심한 반면, 고등학교는 최고 84%, 최저 41%로 차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민학교는 총설치율이 28%이나, 부산직할시는 87%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전라

북도가 10% 미만이니, 아직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나 할까? 10년전의 전국 평균 설치율에 머므르고 있다.

중학교 1,608교에 481관이니 30%밖에 안되나, 중학교 역시 부산직할시가 타도의 2배를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경상북도·충청북도·충청남도·서울특별시·경상남도의 5개 시·도가 40% 내외로 중간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북도와 강원도가 열세이다.

고등학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설치율도 높고, 시·도 간의 차가 적은데, 충청남도와 부산직할시가 높고, 다음이 충청북도·경상북도·경기도·서울특별시이며, 제주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

이것을 11년 전인 1960년과 비교해보자. 도협월보 1권 12월호(1960.12.1)를 보면, 6,308개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포함)에 292관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설치율 5% 약이니, 28%가 늘어난 것이고, 292관의 9.5배인 2,785관이 되었으니, 비약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상지인 경상남도가 중학교 37%, 국민학교 48%에 머므르고 있는 것은(부산을 제외한 타 시·도보다는 앞서 있기는 하나) 중앙도서관을 폐지하고 학급문고를 권장하고 있는 결과라 하니 애석한 일이라 생각된다.

〈표 2〉를 보면, 1년 동안에 학교도서관이 얼마나 늘

〈표 2〉 **B. 1970년도와 1971년도 학교도서관 설치 비교**

교별	시도별 / 연도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민학교	1970	15	66	103	88	35	116	27	289	153	452	8	1,352
	1971	60	86	168	85	15	195	28	303	326	405	21	1,692
	증가수	45	20	65	−3	−20	79	1	14	173	−47	13	340
중학교	1970	11	38	14	9	32	45	2	11	68	78	8	316
	1971	58	56	35	13	35	61	12	25	98	78	10	481
	증가수	47	18	21	4	3	16	10	14	30	0	2	165
고등학교	1970	94	30	71	34	38	58	36	59	92	71	9	592
	1971	93	40	82	38	34	61	42	51	97	65	9	612
	증가수	−1	10	11	4	−4	3	6	−8	5	−6	0	20
계	1970	120	134	188	131	105	219	65	359	313	601	25	2,260
	1971	211	182	285	136	84	317	82	379	521	548	40	2,785
	증가수	91	48	97	5	−21	98	17	20	208	−53	15	525
	증가율	76	36	52	4	−20	45	26	6	66	9	60	23

주 : 본표의 통계 숫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행한 "한국 도서관 통계" 1970 및 1971에 의함. 다음 표의 통계도 같음.

었느냐를 알 수 있다. 1970년에 비하여 525관(23%)이 증가되었고, 증가율로 보아 중학교의 도서관이 많아졌다. 이것은 무시험 추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평준화 작업〉의 성과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표 1〉에 있는 바와 같이 중학교의 70%에는 아직 도서관이 없으니, 평준화의 앞날은 요원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학교에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고등학교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1970보다도 1% 내지 53%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추측컨대, 첫째, 경상남도와 같이 도서관을 해체하여 학급문고를 만드는 식의 정책 전환을 생각할 수 있고, 둘째,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까지 보고를 받자면, 보고 기일을 지켜주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있는 학교가 누락되는 수가 있고, 셋째, 오기로 인한 착오 등을 들 수 있겠다. 혹, 학급 증가로 인하여 도서관을 보통 교실로 쓰게 되어 없애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이런 경우는 겸용 도서관으로 하여 폐지까지는 안해도 되지 않나 생각된다.

위에 든 몇 가지 원인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든 간에 줄었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단언하고 싶다.

1970년에 비하여, 발전이 현저한 시·도는, 국민학교에서 경상북도의 173개관, 충청남도의 79개관, 경기도의 65개관를 꼽을 수 있고, 중학교에서는 서울특별시의 47개관, 경상북도의 30개관이며, 고등학교에서는 설치율이 높았던 관계로 큰 발전이 없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76%, 경상북도의 66%, 제주도의 60%를 들 수 있겠다.

〈표 3〉을 보면 장서의 1년간 증가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시·도가 제주도의

〈표 3〉 C. 1970년도와 1971년도 학교도서관 장서 비교

교별	시도별 / 연도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국민학교	1970	39,252	363,627	326,923	178,260	56,805	211,743
	1971	130,415	614,766	396,917	197,653	35,048	347,015
	증가수	91,163	251,139	69,994	19,393	−21,757	135,272
중학교	1970	24,849	171,202	29,191	26,665	92,850	90,576
	1971	185,246	289,181	95,890	33,094	122,574	128,103
	증가수	160,397	117,979	66,699	6,429	29,724	37,527
고등학교	1970	434,262	152,176	229,918	61,396	105,029	144,321
	1971	463,097	208,388	293,367	105,000	112,778	160,499
	증가수	28,835	16,212	63,449	43,604	7,749	16,178
계	1970	498,363	687,005	586,032	266,321	254,684	466,640
	1971	778,758	1,112,335	786,174	335,747	270,400	635,617
	증가수	280,395	425,330	200,142	69,426	15,716	168,977
	증가율(%)	56	62	34	26	6	36
1책당 인수	학생수	1,205,036	445,178	783,305	463,721	386,560	725,864
	1인당책수	0.7	2.5	1.0	0.7	0.7	0.9

교별	시도별 / 연도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민학교	1970	55,416	518,754	360,287	972,035	2,386	3,085,488
	1971	58,105	573,473	670,394	882,086	46,332	3,952,204
	증가수	2,689	54,719	310,107	−89,949	43,946	866,716
중학교	1970	3,059	26,733	178,835	223,401	12,428	879,789
	1971	26,263	78,939	249,857	248,854	13,720	1,471,721
	증가수	23,204	52,206	71,022	25,453	1,292	591,932
고등학교	1971	110,592	217,153	349,047	258,850	19,689	2,082,433
	1971	119,745	186,058	383,106	226,731	15,428	2,274,197
	증가수	9,153	−31,095	34,059	−32,119	4,261	191,764
계	1970	169,067	762,640	888,169	1,454,286	34,503	6,047,710
	1971	204,113	838,470	1,303,357	1,357,671	75,480	7,698,122
	증가수	35,046	75,830	415,188	−96,615	40,977	1,650,412
	증가율(%)	21	10	47	−7	119	27
1책당 인수	학생수	625,977	1,020,974	1,120,741	790,754	90,348	7,658,491
	1인당책수	0.3	0.8	1.2	1.7	0.8	1.0

119%이고, 그 다음이 부산직할시의 62%, 셋째가 서울특별시의 56%, 넷째가 경상북도의 47%, 다섯째가 충청남도의 36%로 되어 있으며, 부진한 곳이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로 나타나 있다.

장서 증가에서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3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감소된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시·도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총학생수로 총장서수를 나누면, 학생 1인당 몇권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장서에 있어서도 부산직할시가 2.5권으로 가장 우수하고, 다음이 경상남도의 1.7권, 경상북도의 1.2권이 뒤따르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0.7권에서 1.0권으로 엇비슷하나, 유독 전라북도가 0.3권으로 빈약하다.

여기서도, 우리나라의 도서관 운동이 부산·경남에서 비롯하여 북상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수도 서울이 부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서울의 명예를 위해서나, 국가 백년 대계인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III. 1971년도의 학교도서관 활동

4개 도서관 분야 중에서 학교도서관은, 그 수가 많은 것과, 그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 금년 1년 동안에 학교도서관 단독으로 한 것이나, 다른 관종들과 함께 한 활동 중에서 주요한 것을 추려 보기로 한다.

A. 각종 행사

1. 제7회 도서관 주간

1971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1주간 동안, 도서관이 교육과 사회발전에 주는 영향을 인식시키고, 도서관 이용자를 개척하기 위하여, 중앙에 발맞추어 각급 학교 도서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 계획을 세워 뜻있게 보냈다.

2. 제17회 독서 주간

1971년 9월 24일부터 1주간 동안, 범국민적인 독서 운동에 호응,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한 독서회·독서발표회·강연회·다독자 표창·도서관 야간 개관·독후감 모집·포스터·표어 현상 모집 등 다양한 행사를 벌리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3. 제10회 전국도서관 대회

금년으로 열돐을 맞이하는 전국도서관대회가 1971년 9월 16일부터 3일간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개최된 바 동대회에는 학교도서관 회원이 다수 참석하였고, 특히 백낙준 박사의 "지적 자원의 개발과 정신 혁명"이라는 특별 강연과, 이 재철 교수의 "이조 문헌적의 직능과 사명"이라는 주제 강연이 많은 감명을 주었다.

4. 제2회 도서관 및 마을문고 지도자 대회

1971년 9월 29일 30일 양일간,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열린 지도자 대회에서는, 독서 생활지도 유공자 및 모범독서가 표창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늘에서 일만하고 아무런 특혜도 받음이 없는 사서교사 32명이 문교부장관 표창자로서 끼게 되었음은, 학교도서관계에 처음 있었던 일로 일대 경사라 하겠다.

B. 강습 및 연수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문적으로서의 〈사서교사〉 양성을 위하여 120시간 내지 240시간짜리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문교부가 주최하는 사서교사 강습회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서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는 금년이 여섯번째가 된다.

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시작한 학교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너가 과거 여러 곳에서 열렸고, 그와 같은 성질의 모임으로, 충청남도는 교감세미너를 두번째로 12월에 가질 예정이다.

C. 그외의 특기할 사항

1. 경상북도 학생도서관 개관

금년도 학교도서관계의 특기할 사항으로 〈경상북도 학생 도서관〉 개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1971년 5월 5일,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세운 것인데, 총공사비 700여만을 투자하여, 총건평 400평에 666석의 열람석을 가지고 있다. 초·중·고등 학생들의 학습과 교양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값진 투자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2. 충남지구협의회의 필독 도서 목록 제정

1971년 8월 26일, 공주 갑사에 열린 제6회 사서교사 연수회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학년 12권씩의 필독 도서를 선정, 적극 권장하고 있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72권의 양서를 읽혀,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IV. 학교도서관의 당면 문제

A. 사서교사의 문제

교원은 전문직이다. 그 중에서도 사서교사는 더욱 전문적이다.

도서관에 자료가 있어야 하고, 건물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고, 훌륭한 건물이 있더라도, 사서교사가 없어서는 죽은 도서관, 이용안되는 도서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필요한 사서교사인데, 전국 2,785개 학교도서관에 전임 사서교사가 과연 몇이나 배치되어 있을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고서는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기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비할 수 있지 않을까! 각급 학교에 주임 교사 제도가 생겨서, 교무 주임, 학생 주임, 연구 주임, 실과주임(실업고등학교에 한함)이 보직으로 배치되는데, 도서관 있는 학교에는 〈도서관 주임〉을 배치할 수 없겠는가? 훈련된 사서교사들이 주임으로 승진되어, 도서관을 떠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 과외수업이 양성화되어 보충지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 자체의 시비는 덮어 두고서라도,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 보충지도에 들어가면, 몇 100원의 수당을 받게 마련인데, 사서교사가 도서관에서 밤까지 봉사한들 그 공을 알아주는 학교장이 몇이나 될까? 이런 일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학교도서관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B. 예산상의 문제

"한국도서관 통계"를 보면, 2,785개관의 1971년도

예산 총액이 487,634,391원으로 나와 있다. 1도서관에 17만 5천원 평균이다. 700원짜리 책을 산다면 250권정도의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이고, 학생 총수가 7,658,491명이니, 학생 1인당 64원이 채못되는 예산이니, 11명에 1권 정도의 책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예산 가지고는 떨어지는 책 보충하기에도 힘겨운 형편일 것이다.

이것이나마, 그 출처를 따져보면 퍽 다양하다. 시·도비(사립학교에서는 법인비), 자율경비, 도서비, 육성회비 등, 여러 곳의 것을 합쳐서 겨우 이 액수가 되는 것이다.

예산 없이, 좋은 자료를 모으고, 훌륭한 도서관을 만든다 함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국고에서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지금 예산의 10배 정도인 50억 쯤, 대담하게 투자를 할 수 없을까? 정신 개발이 뒤따르지 않는 근대화는 곁치레에 불과한 것이다. 알찬 교양을 쌓은 위에 물량적인 발전을 해야 명실 공히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고를 할애할 수 없다면 국민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 수익자 부담의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C. 법 개정 문제

1963년 10월 28일 공포된 〈도서관법〉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 학교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 나라의 독서 인구가 6%로 되어 있다. 이것은 독서 습관을 몸에 지니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독서 습관을 몸에 베게 하자면,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12년간을 빼놓고서는 할 수 없다고 믿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12년 동안을 좋은 독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의도적으로 독서지도를 한다면,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 독서를 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을 길러내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야 하고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교도서관법〉이 요구된다.

그 내용은, 설치, 직원, 자료, 시설, 운영, 예산 등이 망라된 것이라야 하며, 학교도서관만을 규제한 단독법이라야 한다. 학교도서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V. 맺는 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총수 8,458교에 33%인 2,785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11년 전의 9.5배에 해당된다.

장서면에서도 작년보다 165만권이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평균 학생 1인당 1.0권 밖에 안되며, 0.3권 밖에 안되는 후진도도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는, 학교 도서관에 뜻을 둔 동지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행사를 통하여,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그외의 도서관 운동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해 온 것이다.

이렇게 뿌린 씨를 거두어 한국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자면, 사서교사의 지위 문제가 정립되어야겠고 학교도서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겠다. 또한, 학교도서관 문제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197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무시험 추첨제는 개인차가 심한 학생들을 한 학교에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생들을 낙오자 없이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도서관을 빠짐없이 설치하여야겠고, 훌륭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실한 것으로 발전시켜야 하리라 믿는다. 교육 방법의 개선은 학교도서관이 원천(源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회비와 출판물 대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십시요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가운데도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 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급 도서관에서 보내 주시는 회비와 출판물 대금이 협회의 운영은 물론 우리 나라 도서관 사업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기본자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외에도 수납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난 17차 총회에서 회원 여러 분이 승인하여 주신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여러 도서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줄은 아오나 우리나라의 도서관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시는 뜻에서 년내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